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수백명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.

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치명적인 침몰로 300명의 한국 아이들이 죽은지 벌써 150여일이 지났다. 이 참사 얼마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, 그리고 왜 구조 작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배 안에 갖힌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. 대통령은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주겠다며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위로했다.

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은 이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. 그러나 그 법안은, 심문을 위해 누구든 소환할 수 있는 조사권과 이 사고에 대해, 그리고 실패한 구조작업에 대해 책임이 있는 누구라도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기를 원치 않는 집권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(繫留)중에 있다. 결과적으로, 그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노력에 있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.

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참사 당시 7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고, 결국에는 그녀가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할 순간에 통재본부를 부재 (不在)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. 더군다나 그녀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도 보이지 않았고,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정어린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. 심지어는 그녀를 보기위해 간청해온 희생자 가족의 바램 조차도 외면했다.

우리는 이 재난으로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잃어버렸고, 유족들과 함께 그들의 죽음을 애돌한다. 만약 정부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다면 그 아이들은 구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슬프고 분노한다.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정부가 이 재난을 조사하려는,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가 미래에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분노한다.

우리가 알고 싶은 것:

1.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집무실로부터 사라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?

2. 그 시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구조작업을 위해 어떤 지시들이 내려졌는가?

3. 세월호의 경영에 국정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인가?

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:

1.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.

2.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.

3.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만 한다.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다.

4.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밝혀지고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.

5. 300명의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.